

Monthly JoongAng

(January 2016 issue, 4 pages)

Korean National Major Monthly Magazine

‘The more Interreligious and Multiracial a Country, the more Desperate it is for Family Values and for Societal Cohesion’

The 1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of Founding UPF, the Sunhak Peace Prize Conference Held in India and Nepal in November...

Family Federation Dr. Hak Ja Han:

“Affairs of mankind solvable by teachings of True Love.”

“다종교와 다민족 국가일수록 가정의 사랑과 사회의 화합 절실”

UPF 창설 10주년 기념, 지난 11월 인도-네팔에서 선행평화상 콘퍼런스 개최
헌학사 가정연합 총재 “인류의 재민족화는 참사랑 가르침으로 해결 가능” 강조
최원호 필간중앙 기자 (soosun@joongang.co.kr)

헌학사 평화상위원회가 민주평화연립(UPF)이 지난 11월 UPF 창설 10주년을 기념해 ‘미래세대 위한 평화상 기부문화 및 세계 식량문제 해결책 모색’이라는 주제로 인도와 네팔에서 열리던 평화상 콘퍼런스-NGO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콘퍼런스 를 개최했다.

11월 23일 개최된 인도 콘퍼런스에는 헌학사 평화상위원회 위원장인 고재호 총장과 제1회 선학 평화상 공동수상자인 모다두구 고티 박사 등을 비롯해 최우승의리 비엔노르 싱 인도농촌개발부 장관, 승리 사만 자주 바리다라 자나타당(인도) 인민당 부대표, 싱 고사이리 인도 국회의원, 유정식 UPF 아시아 대표회장 등이 참석했다.

파리 테러 희생자 추모식으로 시작된 행사는 고재호 UPF 평화상 상임 이사장 평화상 상임 집행위원장 최원호 UPF 인도 본부장이 사회를 맡고 헌학사 평화상 상임 집행위원장인 모다두구 고티 박사를 비롯한 최우승의리 비엔노르 싱 인도농촌개발부 장관, 승리 사만 자주 바리다라 자나타당(인도) 인민당 부대표, 싱 고사이리 인도 국회의원, 유정식 UPF 아시아 대표회장 등이 참석했다.

올림픽 위원장은 기후변화를 통해 ‘선학평화상은 고재호 이사장 총재의 사랑과 협력을 기리고 그 유지를 강화하기 위해 영구적인 헌학사 여사의 재민족으로 제정된다. 본선명 출제는 ‘모든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공생-공영-공리의 신념으로 발원된 공동체 건설을 평생을 헌신한 분’이라며 ‘제1회 선학평화상 수상자는 국경과 세대를 초월한 모범적이고 포용적인 인류애로 세계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의인들이다. 기년과 굴주없이 있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꿈과 노력이 세계 국민들중의 자민이라는 기쁨을 일과해서 세계 평화의 사당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 위원장은 이어 ‘선학평화상은 ‘인류는 한 가족, 미래세대 위한 평화상’이라는 기치 아래 온 인류를 계속시킬 사명하여 세계평화를 만들어내는 총기 없는 의인들을 계속 발굴해 지구촌 미래평화를 만들어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평화는 가정에서 시작해 지역-종교로 올라가는 것” 선학평화상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1년이 멀어 모인 가운데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서울 마르티스 호텔에서 ‘제1회 선학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1회 선학평화상은 인도에 총기위협사태 종결과 인도의 모다두구 고티 박사 공동수상했다. 선학평화상 집행위원 최원호 총재와 유정식 위원장이 수상자에게 메달과 상패를 수여했다. 선학평화상은 매년 100만 달러의 11억원의 시상금과 함께 수여되며, 미래세대의 평화와 복지에 헌신하여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시상한다.

고재호 박사는 11월 23일 평화콘퍼런스 초창기위원장을 통해 “갑자기 세계는 평온하다. 하지만 본선명-평화상 총재의 미완에 감사한다. 많은 사람이 평화는 국가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애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평화는 가정의 단에서 시작하고 지역의 단, 종교의 단, 세계로 올라가는 것이다. 선학평화상은 기후평화와 식량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11월 23일 23일 인도 콘퍼런스에는 헌학사 평화상 상임 집행위원장인 최원호 UPF 인도 본부장이 사회를 맡고 헌학사 평화상 상임 집행위원장인 모다두구 고티 박사를 비롯한 최우승의리 비엔노르 싱 인도농촌개발부 장관, 승리 사만 자주 바리다라 자나타당(인도) 인민당 부대표, 싱 고사이리 인도 국회의원, 유정식 UPF 아시아 대표회장 등이 참석했다.

In commemorat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UPF, the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and the Universal Peace Federation opened a Peace Conference with a topic of “Peace Prize for Future Generations: Seeking Solutions to Climate Change and the World Food Crisis” in November, with leaders from India and Nepal in the fields of politics, religion, economics, academics and NGO attending.

At the conference held in India on the 23rd of November, Chairman of the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Il-Shik Hong (former President of Korea University), the joint winner of the 1st Sunhak Peace Prize Dr. Modadugu Gupta, the Union Minister of Rural Development Chowdhury Birender Singh, Vice Representative of the Bharatiya Janata group Shri Shyam, Indian Senator Sing Go Siraya, and President of the Asian Continent of UPF Chung-Sik Yong attended the event. Beginning with a period of silence for the victims of the terrorist attacks in Paris, the event proceeded in the order of a song of celebration - a showing of a video about UPF - a showing of a video on the Sunhak Peace Prize - a special lecture by President Chung-Sik Yong - the presentation of the certificates of appointment to peace ambassadors and the awarding the founding members of the

UPF of India - a congratulatory message from the Minister of Rural Development Chaudhary Birender Singh - a welcoming message and performance report by Commissioner of Education Robert Kittel - a speech by Dr. Modadugu Gupta - and closing message by Sikkim State former Governor Balmiki Prasad Singh.

Chairman Il-Shik Hong said through his keynote address, "The Sunhak Peace Prize was established by the suggestion of Dr. Hak Ja Han in order to celebrate the theories and achievements of Reverend Sun Myung Moon, and to enhance their maintenance. Reverend Sun Myung Moon was an individual that devoted himself to building a community for mankind with the belief of 'All of mankind is one big family,'" and further appraised, "The first winners of the Sunhak Peace Prize are righteous people that perpetuate world peace with a love for mankind that transcends borders in a universal way. The dreams and efforts towards creating a world without poverty and famine are making a miracle for poor countries in gaining self-reliance, becoming in actuality the seeds of world peace."

Chairman Hong then revealed, "The Sunhak Peace Prize is meant to establish a future of global peace on Earth by discovering and recognizing brave righteous people that love mankind like their own family and create world peace, under the central banner of 'Mankind as one Family, Peace Prize for Future Generations.'"

"Peace begins at the level of family and rises to the level of districts and religion."

The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held the "1st Sunhak Peace Prize Awards Ceremony" at the Grand Intercontinental Seoul Parnas Hotel in Gangnam, Seoul on the 28th of August, with 1,000 people participating. The 1st Sunhak Peace Prize was jointly awarded to Kiribati President Anote Tong and Dr. Modadugu Gupta from India. The founder of the Sunhak Peace Prize Dr. Hak Ja Han and Chairman Il-Shik Hong presented a medal and plaque to the recipients. The Sunhak Peace Prize is presented along with one million dollars annually (approximately 1.1 billion won), and is awarded to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peace and welfare of our future generations.

Dr. Gupta said in his speech at the peace conference on the 23rd of November, "I am honored to be able to participate. I am thankful towards the vision of Reverend Sun Myung Moon and Dr. Hak Ja Han. Many people think that peace will be here when the disputes between countries disappear." He further emphasized, "However, peace starts at the stage of family and ascends to the levels of district and religion. The Sunhak Peace Prize has focused on solving the problems of food shortages and climate change."

Dr. Gupta also said, "In 2050, with an increase of the population, there will be many changes to maritime and geological structures, due to climate change. Food crises don't occur only because of a lack of food." He added, "India is a globally renowned rice-producing nation, but because food is not distributed properly, many people are starving. We have to solve such issues."

Participating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Indian government, Minister of Rural Development Chaudhary Birender Singh said in the congratulatory message, "I truly congratulate the 10th Anniversary of UPF and the Sunhak Peace Prize. In a speech given the previous year, the President of India said, 'In the past six years, there have been more changes than in the last 600 years.'" He added, "In our current societal system we don't have enough patience. A quarter of the population of seven billion people is deciding the course of direction for the remaining three quarters."

In his introduction of the keynote speakers, President of the Asian Continent of UPF Chung-Sik Yong explained, "The Sunhak Peace Prize and UPF have the same initiative. It is to remove conflicts and to protect the value of family. Reverend Sun Myung Moon and Dr. Hak Ja Han concentrated on peace in order to create an eternal world of peace. We are here today for the promotion of world peace." Chairman Il-Shik Hong met the Indian Speaker of the House Sumitra Mahajan at the National Assembly office, and explained the purpose and value of the Sunhak Peace Prize. Here, Chairman Hong said,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by founder Dr. Hak Ja Han is naturally important, but it is also important who is awarded. The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finds the fact that Dr. Gupta from India has been awarded to be very significant." To this Speaker Mahajan revealed, "Sustainable peace movements are important, and I shall actively support the activities of UPF and the Sunhak



급타 박사는 또 "2050년에는 인구 증가와 더불어 불-지질 등의 자원도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식량문제는 식량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며 "인도는 대표적인 쌀 생산국이지만 식량공급을 제대로 못해 굶주린 사람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도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차우드리의 비렌드라 싱 인도 농촌개발부 장관은 축사에서 "UPF 10주년과 선학평화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20년 전 대령은 지난해 연설에서 '지난 6년 동안에 그 이전 600년 이상의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며 "지금의 사회 시스템에서 우리는 인내심이 부족하다. 70억 명이

상의 세계화가 있는데 전체의 4분의 1이 4분의 3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정식 UPF아시아대회의장은 기조연설자 소개에서 "선학평화상과 UPF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바로 분쟁을 없애고 가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영원한 평화세계 실현을 소원한 문선명-민학의 총재는 평생 동안 평화활동에 전념했다. 세계평화의 축진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익식 위원장은 수미뜨라 바하간 인도 하원의장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선학평화상의 취지와 가치를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장실적인 문선명 총재의 제정 취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가 수수할지도 중요하다. 인도에서 굶타 박사가 받게 된 데 대해 선학 평화상위원회에서는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바하간 하원의장은 "지속 가능한 평화 운동이 중요하며, 평화를 이루려는 선학평화상위원회와 UPF 활동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미국 뉴욕에서 창설된 UPF는 UN 경제



남이 인류의 한 가족 실현을 위해 평생을 바친 문선명 총재의 평화사상을 이어받은 민학자 총재가 선학평화상을 설립한 것을 알게 됐다. 의회를 대표해서 한 총재의 안면과 행운을 기원한다"며 "네팔과 한국이 가까워진 지 43년이 지났다. 한국이 단기간에 발전을 이룬 과정은 네팔에도 큰 격려가 되고 있다. 두 나라의 정부와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이 협력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PPC-네팔 의장인 에크나 다칼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2014년 11월 6일 수미쓰라 비렌드라 네팔 제헌의회 의장이 발족시킨 PPC네팔은 네팔과 인도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60명이 속해 있다"며 "PPC네팔은 평화-친선 화해-봉사를 신조로 믿고, 민주주의, 보편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평화의 문화를 만들고 노력했다. PPC네팔은 국제협력 촉진, 초종교연합, 리더십의 공공성 향상과 양호정치(良好政治)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학평화상은 PPC네팔과 유사한 비전과 사명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홍익식 위원장은 11월 25일에는 네팔에서 첫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된 비디야 데비 비디리 네팔 대통령을 방문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강담회를 가졌다. 비디리 대통령은 "민학자 총재가 진정한 리더이며 선학평화상이 더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세계평화를 위해 네팔도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도 네팔이 변화의 시기를 아슬아슬하고 도전이 많다. 네팔 국민들은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 내릴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양국이 사회적-문화적 차이를 넘어 화합을 잘 이루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홍익식 위원장은 문선명-민학자 총재의 선학평화상 설립 취지와 정신을 비디리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에 비디리 대통령은 참주평화연맹의 평화대사 수락으로 화답했다.

선학평화상위원회의 관계자는 "아시아에서 선행된 선학평화상 시상식과 평화콘퍼런스, 명품 선학평화상 창설자인 문선명-민학자 총재의 평화철학적인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학평화상과 평화콘퍼런스는 평화를 만드는 모든 갈등을 사람으로 화합하며, 인간과 생애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 문선명총재가 창설한 선학평화상을 창고 있는 네팔과 인도에 비디리 네팔 대통령을 초청하여 홍익식 선학평화상위원회의 위촉을
2 네팔의 평화문화의 국제협력 촉진, 초종교연합, 리더십의 공공성 향상과 양호정치(良好政治)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학평화상은 PPC네팔과 유사한 비전과 사명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1 문선명총재가 창설한 선학평화상을 창고 있는 네팔과 인도에 비디리 네팔 대통령을 초청하여 홍익식 선학평화상위원회의 위촉을
2 네팔의 평화문화의 국제협력 촉진, 초종교연합, 리더십의 공공성 향상과 양호정치(良好政治)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학평화상은 PPC네팔과 유사한 비전과 사명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비디리 네팔 대통령, 참주평화연맹 평화대사 수락 인도 행사에 이어 지난 11월 24일 네팔 하얏트 리젠시 카트만두 호텔에서선 대법의원평화의회 (Parliamentary Peace Council 이하 PPC네팔)와 UPF 주최로 선학평화상 및 UPF 창립 10주년 기념 평화콘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네팔 온사리 가티 국회의장, 간기 아디티 국회의장, 하리범 가즈렐 농업장관, 장관들 비롯해 국회의원 29명과 홍익식 위원장, 용정식 회장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네팔 행사는 네팔국가 제창, 에크나 다칼 국회의원 개회사, 선학평화상 영상 상영, 용정식 회장 특별 강연, 홍익식 위원장 기조연설, 네팔 국회의장 및 네팔 국회의장 평화대사 위촉장 전달, 가티 국회의장 축사, 정중공연, 단 구동 국회의원 폐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온사리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인종-종교-국가를

Founded in New York, USA, in 2005, the UPF is an International Solidarity Organization with the position of being a Special Advisory group of the Economical Council of the UN, and has been active not only in Korea, but all over the world, as well.

Reverend Sun Myung Moon and Dr. Hak Ja Han said in their speeches throughout their world tour, "Even at this moment, all over the world, thousands of innocent lives are being sacrificed due to war, disease, famine and natural disasters," and presented a direction for the future by saying, "If you look at any field, such as religion, politics, education, culture and innovation, individuals and groups are stuck in a quagmire of stubbornness and selfishness, and have closed their doors completely. The numerous problems mankind faces can only be solved by the theory of 'One Family Under God' that Reverend Moon and myself have received from the heavens, and have provided for and advocated for our whole lives; thus, the teachings of True Love."

Nepal President Bhandari, Agrees to Peace Ambassador for Universal Peace Federation

Following the event in India, on the 24th of November the Peace Conference in Celebration of the Sunhak Peace Prize and the 10th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of UPF took place at the Hyatt Regency Kathmandu Hotel in Nepal, hosted by the Parliamentary Peace Council (PPC) and UPF. At the event on this day, Nepalese Chairman Onsari Gharti Magar, Vice-Chairman Ganga Yadav, Minister of the Agriculture Haribol Gajurel, 29 othe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Chairman Il-Shik Hong, and President Chung-Sik Yong participated the event, with a total of 70 people present.

The event in Nepal proceeded in the order of the national anthem of Nepal, opening remarks by Nepal House of Representatives Member Ek Nath Dhakal, a showing of a video on the Sunhak Peace Prize, a special lecture by President Chung-Sik Yong, the keynote address by Chairman Il-Shik Hong, a presentation of certificates of appointment as Peace Ambassadors to the Chairman and Vice-Chairman of Nepal, a congratulatory message by Chairman Gharti, a congratulatory performance, followed by closing remarks by House of Representative Member Dhan Gurung.

In his congratulatory message, Chairman Ansari Gharti said, "I found out that Dr. Hak Ja Han had founded the Sunhak Peace Prize after inheriting the theory of peace that Reverend Moon spent his

whole life using to fulfill one human family that transcends race, religion and nations. Representing the Assembly, I wish for the good health and good fortune of Dr. Hak Ja Han,” and added, “It has been 43 years since Nepal and Korea have become close. The vast development that has occurred in Korea over a short period of time is very encouraging to Nepal. I hope that the citizens and the governments of each country will continue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In his opening address, Chairman of PPC Nepal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Member Ek Nath Dhakal said, “The PPC Nepal that the Constituent National Assembly Chairman Subhas Chandra Nembang began is composed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ies from India and Nepal, and currently has 60 members,” and revealed, “With the principles of peace, friendship, reconciliation and volunteerism, PPC Nepal has been devoted to creating a culture of peace with the foothold of law, democracy and universal values. PPC Nepal holds an objective of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creating harmony amongst interreligious groups, improving a public spirit and good governance. The Sunhak Peace Prize shares a similar vision and mission objective with PPC Nepal.”

On the 25th of November, Chairman Il-Shik Hong met with Bidhya Devi Bhandari, the first woman to be selected as President of Nepal, and a meeting was held in the office of the President.

President Bhandari said, “I wish for the good health of Dr. Hak Ja Han, and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Sunhak Peace Prize. Nepal is also devoting to world peace,” and emphasized, “Nepal is in a time of difficulty, so there are many challenges. The people of Nepal are trying to learn many things from Korea, and are studying hard to go to Korea. Korea-Nepal families are also increasing. It is my wish that both countries may overcome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and create harmony.”

Chairman Il-Shik Hong explained to President Bhandari the purpose and spirit of the founding of the Sunhak Peace Prize by Reverend Sun Myung Moon and Dr. Hak Ja Han. To this, President Bhandari responded by accepting the Peace Ambassador appointment for the Universal Peace Federation.

A member of the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said, “I hope the fervor of the Sunhak Peace Prize Awards Ceremony and the peace conference that took place in Asia serves as a chance for the respect and love for humanity that founders of the Sunhak Peace Prize Reverend Sun Myung Moon and Dr. Hak Ja Han held as their philosophy for peace can be awakened,” and added, “The Sunhak Peace Prize and the peace conference will harmonize with love all of the conflicts that hinder peace, and become a grain of wheat that creates a world where human beings coexist with the ecosystem.”

President Bhandari emphasized, “Many people from Nepal are making an effort to learn a lot from Korea, and are studying hard to go there,” and “Many Korea-Nepal families are also being formed. It is my wish both countries may overcome the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and create harmony.”

Photp

1a. The Nepal Peace Council and UPF opened a Peace Conference in celebration of the UPF 10th Anniversary of Foundation at the Hyatt Regency Kathmandu Hotel in Nepal on the 24th of November.

2a. Joint winner of the 1st Sunhak Peace Prize Dr. Modadugu Gupta is giving a speech.

1b. Members of the Nepal Peace Council are listening to a speech at the peace conference.

2b. President of Nepal Bhindia Bhandari and Minister of the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Il-Shik Hong taking a commemorative photo after the conference has finished.

세상을 보는 힘 | Monthly JoongAng

월간중앙

新年號
새 연재

복거일 소설 '이승만'
유물 쓰여진 이름
김영수의 '조선'을 만든 사람들
장석주 '인류의 등대를 찾아서'
도진기의 '작가주의 법정칼럼'

여야 차세대 리더 4인(김부겸·원희룡·남경필·안희정)
월간중앙 신년 공동선언!

“정파 이익보다 도탄에 빠진 민생부터 살피자”

정치풍향 여의도 귀환 최경환의미션
친박계 물갈이, 총대 멜까

와이드 인터뷰 유승민 전새누리당 원내대표
“보수혁신 위해 온몸 던지겠다”

총력특집 **안갯속 4·13 총선**

수도권 유권자 1106명에게 물었다! 20대 총선 승자는?
“총선 후 김무성·문재인 입지 흔들릴 것”

‘호랑이 굴’ 뛰쳐나온 안철수의 도박
“영호남 통합신당 뜨면 양당구도 붕괴된다”

낙승 기대 새누리당의 신기류
안철수 탈당은 영남권 의원들에게 악재

특별기고 '김영삼 취재 20년' 전록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비망록 공개
“3당합당은 노태우 아닌 YS 주도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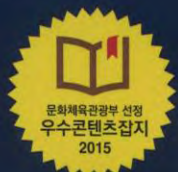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한국경제 칼날 진단
“경제당국이 환율·금리·조세 등 정책수단 너무 아낀다”

일본정치 아베 신조의 혈통과 성장의 비밀
“사랑에 굶주린 소년, 독재자가 됐다”

심층취재 '이현령비현령' 허술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감히 경찰을 우습게 봐? 콩밥 먹어봐!”

특집
2016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혁신 무장해 위기 극복한
13인의 리더십

1
2016



단독 인터뷰 일본 골프계 평정, '보미짱' 이보미
“아빠 지켜보고 계시죠? 저 7승 먹었어요”

스타 매력탐구
모델 겸 배우 스테파니 리
“동양인 첫 본드걸 욕심 나는 걸!”

